

서울시 ‘GPR 탐사’ 10년… 조사연장 12배

지반 1km당 공동 수 5분의 1로 감소
내년부터 연간 1.8만km 탐사 계획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조사연장은 약 12배 늘고 1km당 발견된 공동(땅속 공간)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공간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하는 대표적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례 탐사해 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km에서 지난해 기준 약 7169km로 약 11.7배 증가했다. 시는 연말까지 9000km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km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하고, 차량형 GPR 장비 3대를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해 총 10대(차량형 7대, 핸드형 3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조사연장은 총 3만 3129km에 달하며, 이 기간 발견된 공동은 총 7760개로 집계됐다.

탐사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발견되는 공동의 수도 늘었으나, 1km당 공동 발견 건수는 2015년 0.41개에서 올해 0.08개로 10년간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를 통해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굴착공사장에 주변에 대한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에 대해 매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점검 중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AI 활용해 도로·터널 안전 강화

지하차도 침수, 터널 화재 등 긴급조치

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지하차도 2개소, 터널 14개소)의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자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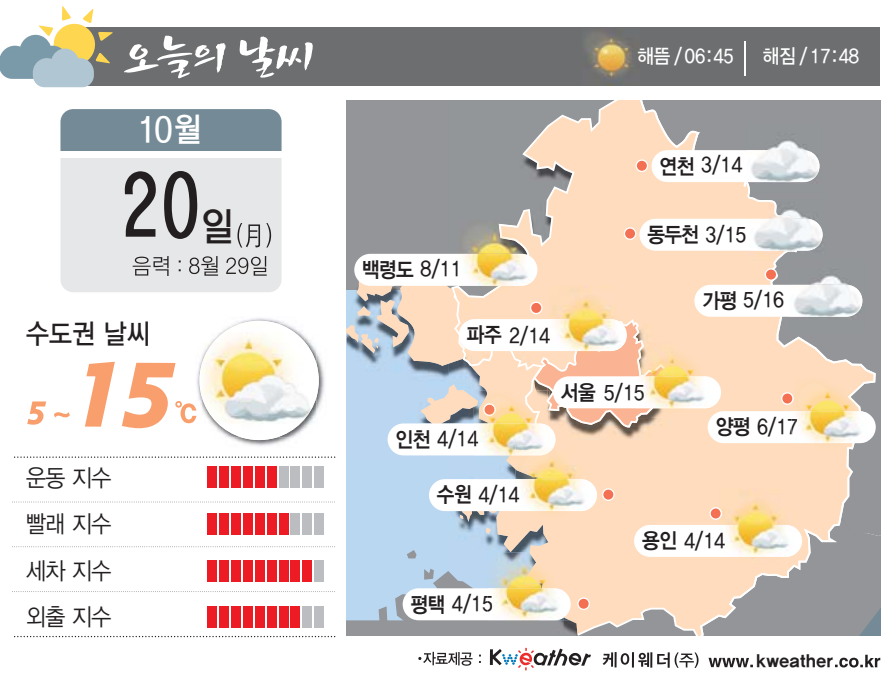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의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CCTV에 AI 프로그램을 연결함으로써 지하차도 침수, 터널 화재 등 다양한 상황 발생이 즉시 관리사무소로

전송해 긴급조치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용인 문수산 터널에서도 소방본부·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면서 AI를 활용한 연기 감지 및 주요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했다. 화재 발생 시 AI 시스템은 연기를 즉시 감지하여 사고 상황을 모니터 화면에 송출하고, 경보음과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송되는 시스템을 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CCTV 관제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맞춤형 AI 시스템을 지방도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지하차도 2개소(화성 천천, 속곡)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성능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 전체 지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김종택 기자 mk4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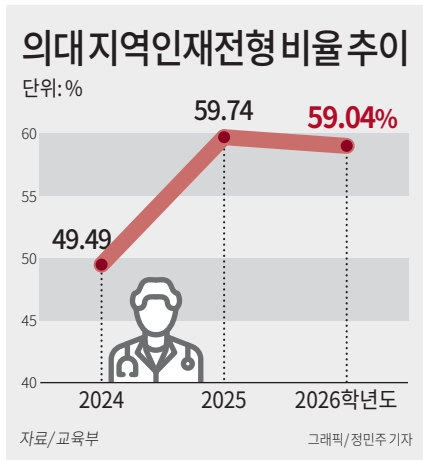
글로벌대학, 지역인재전형 줄여 지역 균형발전·선순환 목표 무색

12개 대학, 지역인재전형비율 감소
그 중 7곳, 정부지원 ‘글로벌대학’
김문수 의원 “교육부가 관리해야”
교육부 “지역인재전형 확대 독려”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벌대학’ 상당수가 이에 포함돼, 지역 인재 양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 대비 감소한 대학은 12곳,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대학은 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이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



2026학년도 59.04%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소폭 하락했다.

2026학년도 기준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78.57%, 가장 낮은 대학은 22.78%로, 모두 글로벌대학이었다. 전국 26개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대인 대학은 3곳으로, 강원 지역 사립대가 주를 이뤘다.

정부 권고 비율(6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총 10곳이며, 이 중 2곳은 기존 글로벌대학, 3곳은 최근 지정된 글로벌대학이었다. 다만 법정 의무선발 기준(지방대 40%, 강원·제주 20%)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전년 대비 12.35%p 오른 C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18.01%포인트 줄어든 D대로, 두 곳 모두 글로벌대학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 권고보다 낮거나 오히려 비율을 줄인 대학 다수가 글로벌대학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라며 “지역인재 양성고 지역 정주 선순환의 모범이 돼야 할 글로벌대학부터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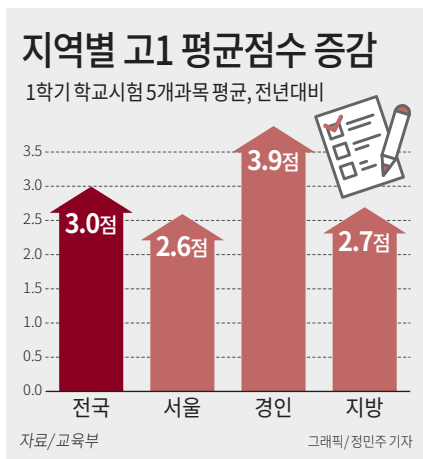
내신 5등급제 앞둔 고1, 시험 평균점수 상승

고1학기 시험점수 전국 일제히 상승
5등급제로 상위권 동점자 늘어날 것
고교 내신 변별력 확보 고민 깊어져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면 전환되는 가운데, 첫 적용 대상인 현 고1 학생들의 1학기 학교 시험 평균점수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개편을 앞두고 학교별 원점수와 등급 간 격차, 그리고 대학 입시 반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전국 1781개 고등학교(일반고 1693개, 특목·자사고 88개)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주요 5개 교과와 평균 점수는 전년 67.1점에서 올해 70.1점으로 3점 상승했다. 학업성취도 A등급(90점 이상) 비율도 20.5%에서 23.7%로 3.2%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점, 경기·인천(경인권)이 3.9점, 지방이 2.7점 각각 상



승했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서 시험 평균점수가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세종시가 평균 74.0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고, 충남은 전년 대비 4.7점 상승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목·자사고의 주요 5개 교과 평균점수는 79.6점(전년 78.4점 대비 1.2점 상승)이었으며, A등급 비율도 48.5%(+2.9%p)로 높았다.

학교별로는 ▲외대부고(93.1점) ▲청

심국제고(92.0점) ▲안양외고(91.9점)가 평균점수 상위권에 올랐고, A등급 비율은 ▲서울국제고(94.4%) ▲대일외고(88.9%) ▲안양외고(87.4%) 순으로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상위 10%가 1등급, 상위 34%까지가 2등급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 간 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현장에서는 내신 변별력 확보와 학생 원점수 관리 사이에서 시험 난이도 조정이 어려워지고, 대학 역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 내신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1·2등급 동점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이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함께 반영할 경우, 학교 간 시험 난이도에 따른 불이익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체험열차로

휴업 3년 3개월만에 운영재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업 중이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체험열차로 변경에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17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재개 기념행사’를 열고 주 6일(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탑승 가능하게 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노선은 6개 역사, 총 6.1km 구간이며,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서 관광·체험열차로 변경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16년 2월 대중교통시설로 개통한 뒤 2022년 7월부터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 효율화 진단을 위해 운행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3년 3개월만에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메트로 한줄뉴스



▲日 731부대의 잔혹한 인체실험 폭로 獨학자 책 출간돼
▲러, 우크라 전력망 대규모 공격…키이우 등 우크라 8개 지역 정전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행정부, 난민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백인 우대”
▲中관영매체 “美 폐식용유 수입 중단, 무시할 만한 수준”

▲日자민당·유신회, 연립정권 협의 착수…정계 재편 급물살
▲9월 인도 무역적자 321억\$로 확대…트럼프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